

출애굽기 17 장 바위에서 물이 솟다,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다

1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 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 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2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 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6 이제 내가 저기 호렙 산 바위 위에서 너의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였다. 9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 있겠소." 10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11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12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 와서 모세를 얹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 17 장에 와서도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물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괜찮지만 불평하고 지도자에게 대드는 것은 죄입니다. 기도하는 대신 불평을 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15-16 장에서 물, 메추라기,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불평하는 모습에는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7 절을 보면 지명을 붙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각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므리바는 하나님께 대들었다고 붙인 이름이고 맛사는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는 의미에서 붙이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보면 백성들이 불평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신가를 의심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8 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번째로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을 해 왔기 때문에 벌어집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에서의 후손으로 사해 부근에서 살던 유목민입니다. 이 전투에서 '여호와 닛시' 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 9 절이후에 전투에 관한 서술이 나오는데 눈에 띄는 것은 모세가 든 '하나님의 지팡이' 입니다. 지팡이를 든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우세하고 내려가면 불리해 집니다. 이것은 전투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아론과 함께 잡은 잡은 훌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 9 절은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언급되면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이끄는 모습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4 장 13 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관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출애굽의 지도자로 육성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보입니다. 14 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없앨 것을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25 장 17-19 절에 그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 14 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책에 기록하라고 명하십니다. 모세가 출애굽 과정의 중요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런 기록들이 모세가 구약의 첫 5 권을 (모세오경) 적었다고 이야기 하는 근거가 됩니다.

출애굽기 18 장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다, 재판관 임명

5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세가 진을 치고 있는 광야로 갔는데, 그 곳은 바로 하나님의 산이 있는 곳이다. 7 모세가 그의 장인을 만나러 나와서, 그에게 절을 하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장막으로 들어갔다. 19 이제 내가 충고하는 말을 듣게.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자네는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일을 아리게. 20 그리고 자네는 그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그들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알려 주게. 21 또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그리고 그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으로 세워서, 22 그들이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백성을 재판하도록 하게. 큰 사건은 모두 자네에게 가져 오게 하고,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도록 하게. 이렇게 그들이 자네와 짐을 나누어 지면, 자네의 일이 훨씬 가벼워질 걸세.

- 18 장에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여러 신중의 한 신으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11 절, 12 절 내용을 보면, 출애굽 과정의 이야기를 듣고나서 이드로가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말하고 제물을 바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 13 절 이후를 보면 모세가 백성들의 송사를 해결하려고 하루 종일 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6 절을 보면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백성들에게 알려준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대부분의 율법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모세의 경험이 재판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또 모세가 하나님을 따로 만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에 관한 가르침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 이 당시에 다른 이방 사람들도 율법과 비슷한 내용의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모세가 수용하는데 모세는 백성들 사이에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으로 세워 간단한 사건들을 처리하게 하고 자신은 어려운 사건들을 맡는 동시에 하나님과 만나는 일 그리고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업무 분담을 통해 모세가 하는 일에 변화가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